전영애의 '여백서원에서'

대책없는 현실 앞에서

-괴테의 축제극 '에피메니데스의 깨어남'

'에피메니데스의깨어남'은 1814년의 해방전쟁으로 나폴레옹의 지배를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공연을 위해 의뢰받은 작품으로 1815년 3월 30일과 31일 양일에 베를린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되었다. 축제극 대본으로 쓰였고, 이듬해에 수정해서 펴냈다. 2막극인데 대사의 대부분이 시와 노래라 희곡이기보다는 오페라 대본으로 보인다.

등장인물들이 대부분악령, 사랑, 믿음, 희망같은의 인화된 알레고리라우의극이기도 하다. 매우 고전적인 언어임에도 여느 고전극과는 달리, 지문이 매우 상세하여 무대 설명은 물론 인물들의 세세한 동작까지 지시해놓았다.

그리스 신화가 소재이다.에피메니데스는크레타 섬에서아버지의 양들을 돌보던 목동이었는데 양떼를 잃어 찾으러 다니다가 어떤 동굴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깊은 잠에 빠져 57년을 잤다.얼마나 잤는지 모르고 다시 깨어나자 본인은 현인이 되어 있었고 세상은 놀랍게 달라져 있었다. 집으로 가보니 형제들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후에 그리스 전역에서 신들의 총아로 여겨지기 시작했으며 크레타에서 백 년 이상 살고 죽자, 신으로 추앙되었다고 한다. 그리스의 일곱 현자들의 하나로 꼽기도 한다. 아무튼(난세를 겪지 않고, 아무런 공로도 없이) 잠을 자서 지혜로워진 사람이다. 잠에서 깨어남과 지혜로운 개안(開眼)이라는 오래된 소재를 가져와 괴테는 자신의 당대의 세계사적 사건들을 배경으로 극을 구성했다.

주인공 에피메니데스는 잠자고 깨어난 사람인데 이 작품잉 발단에서 또다시 잠을 자러간다. 바깥에서는 그의 지혜로도 통찰이 안되는 어려운 상황이 전쟁 발발의 나팔소리가 시작되는데 말이다.

전쟁은 1막 전체에서 그가 다시 잠을 자고 있는 동안 벌어지고, 압제의 악령 등 여러 악령을 통하여 표현되어 있다. 현재는 "수정구슬 속의 것인양 투명하게 보이건만 미래는 한 치도 보이지 않아—미래의 통찰까지 기대하며— 다시 잠에 든 에피메니데스가 2막 후반부, 즉 작품 끝에 가서야 전쟁이 휩쓴 폐허를 직면하며 깨어나기는 하지만, 그 자신의 대사는 몇 마디 되지 않는다. 그가 하는 유일한 행동은 압제에 맞서는 여러 민족의 연합을 축복하며 소개하는 것뿐이다.지금껏 숨겨져 있던 베일 쓴 여인을 앞으로 인도하고 그녀의 베일을 뒤로 걷는다."뿐이다. 그것이 결성되는 연합군의 소개인데, 그나마 대사가 아니고 지문이다.

그의 지혜는 '희망', '믿음', '사랑' 같은 우의적 인물들을 통해 의인화되어 간접적으로 표명될 뿐이다. ('서.동 시집'의 시편 부분도, 폭압의 세월을 잠 자며 넘기고, 긴 세월 후에 깨어나 달라진 낯선 현실을 직면하지만, 결국 다시 잠자러 가는 '일곱 잠자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마무리된다.)

매우 현실적인 계기에 쓰인 작품의 주인공이, 더구나 현인(賢人)이, 왜 좋은 말 좀 하지 않고 이렇듯 잠만 자는 것일까. 왜 이리 무력해 보이는 것일까. 왜 그 얼마 안 되는 발언마저 죄다 이리 추상적일까. 마침내 평화의 전망이 열리면 감격하여 환호작약케 해야할 것같은데 괴테는 왜 이런 작품을 썼을까. 동시대사가 배어있지 않을 수 없는 작품의 주인공이, 그것도 현인이, 잠을 자는 사람이라니. 의문에 의문이 든다.

'에피메니데스의깨어남'은 나폴레옹을 격파한 직후의 축하공연으로 기획된 극이다. 전쟁뿐만 아니라, 이 극 공연 중에 열리고 있던비인 회의(1814년9월-1815년 6월)가 장면 전체 배경에서 어른거린다. 나폴레옹의 지배는 여러 민족이 힘을 합쳐끝냈다지만, 비인회의는 프랑스 혁명의 기운이 유럽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유럽 여러 제후들이 모여 반동복고적인 기조로 유럽을 재편하는 대책을 꾀하던 것이었다. 그런 회의마저 마냥 늘어져 "회의는 춤만춘다"라는 비판을 낳았을 만큼 유럽 전체의 정국이 대책없이 혼미했던 때이다.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현실 앞에서 괴테는 이런 기이한 작품을 썼다. 그 어떤 대책의 제시나 저항의 언어는 어쩌면 허구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독특하게 현실적이기도 하다. 아무려나 시대의 알레고리일뿐더러 동시에, 문학의 알레고리로도 읽힌다. 읽는 사람은, 막막한 현실 앞에 망연히 선 사람들의 마음도 새삼 헤아려 보게 된다.

社說

내란정권의 'ACC 고사작전'…원상복구 시급

최근 아시아문화전당(ACC)의 운영 주체와 핵심 시설인 민주평화교류원의 분리 시도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때아닌 논란에 대해 지역사회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반대했는데 그 배경이 이제야 밝혀졌다.

윤석열 정권이 광주지우기 차원에서 'ACC 고사작전'을 벌인 것이 배경이었던 것이다. ACC 고사작전은 윤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돈줄 죄기부터 시작됐다. 2023년 513억원이던 ACC 예산은 윤 정권 편성이 반영된 2024년 220억원으로 줄더니 2025년에는 172억원까지 급감했다.

운영 효율화를 내세워 돈줄을 죈 뒤 ACC를 비롯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성위원회 위상 낮추기에 들어갔다.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이던 조성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하하기 위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만약 국무총리 산하로 격하되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자체가 국책사업의 위상을 잃고 한낱 행정 실무기구로 전락하게 된다. 조성위원회를 2022년 5월 8기 위원 임기 만료 후 지금까지 9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도 힘빼기 일환이다.

더 심각한 것은 광주정신의 상징인 민주평화교류원을 ACC에서 분리하려 했다는 점이다. 문체부에서 행정안전부나 국가보훈부로 넘겨 단순한 기념관으로 전락시킬 계획이었다니 아찔하다. 옛 전남도청 등으로 구성된 민주평화교류원은 5·18의 상징 시설로 민주·인권·평화라는 광주정신을 문화예술로 승화시켜 세계와 교류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는데 이를 분리하겠다는 것은 광주정신을 지우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지만 아직까지 조성위원회 격하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고 ACC 운영 주체 논란과 민주평화교류원 분리 시도 조치가 원상복구 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광주정신으로 내란을 극복했는데 내란 정권의 광주지우기 시도를 그대로 방치해서야 될 일인가. 정부는 조성위 격하 법안 철회를 위한 조치는 물론 민주평화교류원 분리 시도 등 ACC 운영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 광주정신이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수정당 장벽 낮추는 '4인 선거구', 이번만은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적용될 광주시 기초의원(구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광주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의결했는데 구의원 정수 68명은 그대로 두고 '4인 선거구'를 두 곳 도입한 것이 골자다.

인구수 반영 비율 60%와 행정구역인 동수 40%를 적용해 인구가 많은 '남구 나 선거구'와 '광산 마선거구'의 의원 수를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대신 '남구 다선거구'와 '광산 가선거구'는 한 명씩 줄였다. 이번 조정은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4인 선거구가 확정되면 3~4위 득표자도 당선권에 들어 소수 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획정안이 확정되려면 광주시의회 통과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광주시 획정위가 4인 선거구 신설을 포함한 혁신적인 안을 마련했지만 광주시의회가 2인 선거구로 되돌려 버려 없던 일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광주시의회가 이번에도 이런 일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문제다. 2인 선거구제를 통해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역위원장을 맡아 시의원들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마당에 일당 독점의 기득권을 버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말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내세워 다양성 확보를 외치면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구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광주시의원들의 자발적인 결정이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시민사회가 선거구 획정안이 내년 지방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감시의 눈길을 늦춰서는 안될 것이다.

의료칼럼

치아가 '쪼개지는' 이유

이 경 제
조선대치과병원 치과보철과 교수

대수롭게 않게 여길 수 있는 치아의 작은 금이 인생의 큰 불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번씩 음식을 씹으며 치아를 사용한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쌓이는 힘과 습관이 결국 치아에 미세한 금을 만들고 어느 날 갑자기 쪼개지는 일이 생긴다.

이처럼 치아가 금이 가거나 부러지는 것을 '치아 파절(치아 균열)'이라 하는데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도 충치와 잇몸병 다음으로 발치 원인 3위에 오를 만큼 흔한 문제이다. 문제는 대다수 환자들이 "충치도 없고 겉으로 멀쩡하니 괜찮겠지"라고 방심하다가 통증이 심해진 뒤에야 병원을 찾는다는 점이다. 이미 치아가 쪼개진 뒤에는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치아는 단단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수분이 줄고 탄성이 떨어지면서 쉽게 부서진다. 여기에 이를 악무는 습관, 한쪽으로만 씹는 버릇, 뜨거운 음식 후 바로 찬 물을 마시는 식습관, 얼음이나 뼈를 깨무는 행동이 더해지면 치아에 반복적인 피로가 쌓인다. 특히, 씹는 면(교두)의 기울기가 높은 치아는 저작 시 힘이 한쪽으로 쏠려 쉽게 금이 간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저작 시 '찌릿한 통증'이 나타나거나 시린 증상이 생기면 이미 금이 진행 중일 수 있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도 파절이 생길 수 있다.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의 경우 치아 자체의 강도도 약화되지만 치아도 건조하게 되어 파절에 취약하게 된다. 또한 드물지만 항암치료의 일종인 방사선 치료도 치아 약화의 원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파절은 단순한 치아의 손상이 아니라 저작력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이기도 한다. 결국 치아 파절은 건강한 치아에 큰 힘이 가해지거나, 약해진 치아에 평범한 힘이 가해져도 생길 수 있다. 엑스레이로도 잘 안 보인다

치아 파절의 진단은 생각보다 어렵다. 미세한 금은 엑스레이로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치과에서는 확대경 검사, 염색 검사, 광투과검사 등을 활용해 균열을 찾는다. 씹을 때 순간적으로 통증이 느껴지거나 특정 치아에만 시림이 있다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냥 시린 것 같아서 참았다가 나중에 치아가 완전히 쪼개져 뽑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파절된 치아 주변에는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 시간이 지나면 치수염이나 치근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초기의 작은 금이 결국 염증과 발치로 이어지는 것이다.

치아 파절은 깊이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다. 겉면의 미세한 금(craze line)은 치료 없이 관찰만 해도 된다. 치아 윗부분이 살짝 부러진 경우(fractured cusp)는 레진·인레이·온레이 등으로 수복한다. 치아 내부까지 금이 간 경우(cracked tooth)는 신경치료 후 크라운(인공치관)을 씌워야 한다. 치아가 완전히 쪼개진 경우(split tooth)는 불행히도 발치 외에는 방법이 없다. 조기에 발견했다면 교합 조정이나 보호용 임시 크라운으로 통증을 완화하고 치아를 살릴 확률도 높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재료로 수복하느냐"보다 교합력을 안정시키는 치료이다. 치아를 단순히 때우는 것이 아니라 힘의 분산을 고려한 장기적 관리가 필요하다.

치아 파절은 한 번 생기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먼저 단단한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얼음, 뼈, 호두껍질은 치아의 천적이다. 이갈이·이악물기는 방치하면 안된다. 수면 중 보호장치(마우스피스) 착용이 도움이 된다. 정기검진은 필수이며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다.

치아는 돌보다 단단하지만 습관과 시간 앞에서는 쉽게 금이 간다. 작은 균열 하나가 통증과 발치로 이어질 수 있기에 평소 관리가 필요하다. 씹을 때 순간적으로 찌릿하거나 시림이 느껴진다면 "조금 쉬면 낫겠지" 하지 말고 바로 치과를 찾아야 한다. 치아는 한 번 쪼개지면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미리 알고 관리하면 평생 쓸 수 있다.

기 고

통합 돌봄, 도시락으로 나누는 사랑

이 윤 경
라라팩토리 대표

'식구'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직접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지만 1년간 도시락 배달을 하면서 어르신들을 만나 식사를 대접하고, 사소한 이야기일지라도 함께 나누며 보낸 시간들 덕분에 어르신들과 식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다.

필자는 2023년 라라팩토리 법인을 설립했고, 통합돌봄 예산을 받아 식사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누군가의 자식이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해 제때 식사조차 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만나 도시락을 제공하며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 많았다. 단순히 사업체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참된 의미의 봉사와 헌신을 실천할 수 있어 필자에게 의미가 있었다. 처음에 머릿속으로 그리며 생각했던 것과 달리 현실은 녹록치 않았기에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지만 직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의기투합한 덕분에 뜻깊은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도시락 배달 이외에도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조금이라도 더 챙겨 드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했다.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 중에 대인기피나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기로 했다. 식사 지원 서비스로 도시락을 제공함으로써 당장의 허기는 채울 수 있겠으나, 어르신들의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도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기부 개념으로 베이커리를 간식으로 제공하는 것이었다. 베이킹 사업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베이커리를 만드는 것이 가능했고 저작 활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빵이나 케이크를 제공했다. 푹신한 질감의 카스테라나 달콤한 케이크류 위주로 전달했고 간식을 먹는 동안 말벗이 되어 줄 수 있었다.

두 번째 서비스는 미술 치료 유인물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일주일에 두 번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미술 치료 유인물을 만들어 도시락에 동봉했고 짧은 교육을 진행했다. 콜라주 미술 치료 등과 같은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적극 활용한 덕에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가장 고령자이신 113세의 A 할머니와의 만남은 이 사업에 더욱 긍지를 갖게 했다. 할머니는 고령으로 전신이 쇠약한 탓에 일상에서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경미한 치매 증세도 보였다. 식사는 일주일에 세 번, 한 끼씩 제공했는데 처음 만났을 때 할머니는 일반식을 원했다. 하지만 직접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저작을 할 수 있는 치아가 거의 없어 일반식이 어렵다고 판단해 죽을 먹는 것을 제안했다.

"죽은 너무 쉽게 배가 꺼져. 난 고기가 좋아" 하시던 할머니에게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한 후 충분히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유동식을 배달하기 시작했다. 평소 말이 많지 않던 할머니는 어느 날 "내가 언변이 없어서 표현을 잘 못해. 고맙고 사랑해. 딸보다 자네가 더 좋아." 라며 속마음을 꺼내 보여 주었다.

먹고살기 위해 사업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 일을 통해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순간들이 많았다. 빈 도시락통에 온갖 간식과 과일, 반찬거리가 담겨서 올 때면 감사의 마음이 들고 달력 뒷면에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서툴게 적은 감사의 쪽지를 사무실에 붙여 놓고 출근할 때마다 읽으며 행복한 기운을 받곤한다.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다 보면 편찮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지난주까지는 식사를 잘 하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기도 하고 매번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도 일어난다. 사업 초기에는 이런 갑작스러운 이별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정신을 부여잡고 일하는 데 힘이 부치기도 했다. 이제는 당장 언제 어떻게 어르신들과 작별할지 모른다는 마음에 매번 만날 때마다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시락을 배달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은 매일같이 너무나 큰 선물을 받고 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예산이 한정돼 있어 도시락을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원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안타깝고 속상하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라라팩토리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더욱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통합 돌봄 사업이 더욱 활성화돼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희망한다.

無等鼓

아버지 울음방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는지 모르겠네요." 중년 남성들을 만날 때면 심심찮게 듣는 말이다. 아무 일도 아닌데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족들과 TV를 보다 혼자만 눈물이 흘러 아내 보기 민망했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한다.

나이 든 남성들이 눈물이 많아지는 건 과학적으로도 입증됐다. 40대에 접어들면 점차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는 대신 감정을 민감하게 만드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증가하면서 감정적인 변화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뇌에서 감정을 조절하고 억제하는 전두엽과 측두엽, 해마의 크기와 기능도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주홍수 작가의 '토닥토닥 쓰담쓰담'전(생각상자 갤러리·19일까지)에 갔다 '울음'에 대해 생각했다. 지하철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조는 사람들, 나물을 파는 노점상 할머니 등 다양한 인간군상을 담은 작품을 관람하던 중 팸플릿에서 '아버지 울음방'이라는 말을 발견해서다. 개그맨 고(故) 전유성이 주 작가의 저서 '토닥토닥 쓰담쓰담'에 쓴 추천사에 등장하는 구절인데, 단어만으로도 울컥해졌다. 주 작가의 작품을 "중년 남자들 혹은 그 위 연배 아버지들의 복습서"라고 표현한 그는 "어느 날 문득, 한밤중에 전화 걸어 내 지나온 이야기를 풀어내며 울고 싶은 밤이 있다. 혼자 조용히 울고가는 '아버지 울음방' 체인을 만들면 어떨까 상생해본다"고 적었다.

한바탕 울고 나면 막혔던 속이 뚫리는 기분이 든다. 어찌 아버지 울음방 뿐이겠는가. 회사 생활에 지친 이를 위한 울음방, 자신에게 실망한 사람을 위한 울음방, 헤어진 사람을 위한 울음방 등 마음을 풀어놓을 안식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스페인어로 피난처, 안식처, 귀소 본능을 뜻하는 '케렌시아'(Querencia)는 투우장의 소가 지친 심신을 달래는 장소를 말한다. 소는 위협을 피할 수 있는 경기장 안 특정 장소를 기억해 그곳을 자신의 케렌시아로 삼고 투우사와의 싸움에서 지치거나 죽음이 예상되는 순간이 오면 케렌시아로 이동해 숨을 고른다. 나만의 케렌시아, 나만의 울음방을 하나 쯤 갖고 있다면 힘든 세상을 건너는 데 힘이 되지 않을까.

/김미은 여론매체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